

달성군, 전국 82개 군 중 '가장 안전한 도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 평가 군 단위 1등 영예...

달성군이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 안전지수 평가'에서 전국 군 단위 중 1등으로 최고 수준의 안전도시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

식 등 상대적 안전여량을 진단하고 2015년부터 매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물안전 △자살 △감염병 6개 항목을 각 지표에 따라 분석해 지역별 안전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군은 총 6개의 분야 중 9년 연속 3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6개 분야 평균 2등급을 받아 안

전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했다. 전국 82개 군 단위 중 1위로 가장 우수하다. 대구 9개 구·군 중 1위, 전국 226개소(시·구·군) 중 상위 4%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 달성군은 전국에서 최우수 수준의 안전한 도시임을 또다시 입증했다. 앞서 군은 2023년 8월에 주요 등산로 입구와 근린공원 등 이용객이 많거나 범죄 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와 스피커, 비상

벨 등을 설치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와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자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과 상호 협력, 사고 위기 대응 등 지역사회 위험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최근 대구시 주관 자연재난 관리실 태평가 우수기관 선정, 재해예방사업 추진 실태점검 결과 우수기관 선정,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보건업무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등 각종 안

전 평가에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이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 앞으로 더욱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살기 좋은 달성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안전지수 공표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나 국립재난안전연구원(www.ndmi.go.kr) 또는 생활안전정보(www.safema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여은 기자



아뢰오! '톡톡 튀는 영천 매력' 우리에게 맡겨요

새봄과 함께 2024 새영천 알림이단 다시 피어 나다

영천시는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새영천 알림이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새영천 알림이단은 2017년 SNS 서포터즈단을 거쳐, 2019년부터 지금의 '새영천 알림이단'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천시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자랑거리 등을 영천시 공식 SNS에 널리 알리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직업군과 폭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됐다. 새영천 알림이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영천의 축제, 관광지, 시책 등을 다방면으로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한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소개하는 등 영천시를 전국에서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힐링 도시로 거듭나도록 홍보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영천 알림이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앞으로 각자의 개성을 살려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 영천을 널리 홍보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새영천 알림이단의 활발한 활동으로 영천시는 '소셜아이어워드 2023'에서 페이스북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은하 기자

경북문화재단 새 대표이사 김재수 전 농축산부 장관

경북도가 공모를 거쳐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에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11일자로 임명했다. 영양 출신인 김재수 대표이사는 경북대 경제학과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지냈다. 김대표이사는 취임사에서 "도민과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경북의 우수한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모두가 즐기는 문화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북문화재단은 지난 7월 경북도 출자 출연기관 중 처음으로 통합기관으로 출범해 양 기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다양한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김재수 대표이사가 통합기관의 빠른 안정과 문화 예술·콘텐츠 산업 결합으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동구·군위를 강대식, 안동·예천 김형동 공천

대구 12곳 중 10곳 확정... 경북 13곳 중 11곳 확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제22대 총선 경선에서 대구·경북 현역인 강대식·김형동의 의원 본선행을 확정했다. 대구 동구·군위를에서는 초선 강대식 의원이 이재만 전 동구청장에 결선 투표 끝에 승리해 재선 도전의 기회를 잡았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경북 안동·예천의 초선 김형동 의원 역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승리하며 공천권을 거머쥐었다. 대구에서는 달성군(추경호)·서구(김상훈)·북울(김승수)·수성갑(주호영)·수성을(이인선)·달서갑(유영하)·달서을(윤재욱)·

서는 사실상 현역 의원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경북에서는 경산(조지연)·포항북구(김정재)·포항남구울릉(이상휘)·경주(김석기)·김천(송연석)·구미갑(구자근)·상주·문경(임이자), 영주·영양·봉화(임종득), 영천·청도(이만희), 고령·성주·칠곡(정희용) 등 13곳의 지역구 중 11곳에서 공천을 확정지었다. 구미을은 현역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재안비서관, 최우영 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의 4자 경선이다. 경북의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는 영주·영양·봉화에서 지역구를 옮긴 현역 박형수 의원과 김재원 전 의원의 양자 경선을 벌인다. 김성용 기자



동구청, 시·구·군 협력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특별조정교부금 14억36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 동구청은 '2023 시·구·군 협력증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별조정교부금 14억36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시·구·군 협력증진사업'은 대구시가 2018년부터 시작, 대구시와 구·군의 공동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정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23년 평가에서는 10개의 개별사업 분야와 중앙정부 주관 2개 대외평가 협력도 분야, 시정업무 협조 분야 등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조미경 기자

동구는 취약계층발굴과 안전위해요소 신속 대응을 위한 안전협의체 구성으로 민간주도형 재난대응 모델을 구축한 '재난제로 안전도시 조성 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MOU를 체결한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사업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림 다짐 챌린지, 구청장과의 청렴 담론회, 청렴퀴즈쇼 1대100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렴 문화 확립에 기여한 '청렴도시 만들기' 사업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올해도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직영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단체장 일정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3일 오후 본청 응비관에서 경북교육발전 유공 표창 수여식에 참석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13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세천 금호강변 가족캠핑장 조성 사업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2



대구경찰, 의무 위반·학폭 근절 합동 계몽운동

대구 경찰이 출근 시간대 지역 곳곳에서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7시50분부터 8시30분까지 경찰서 정문에서 청렴동아리

'너울가지' 회원들과 합동 계몽운동을 했다. 계몽운동은 경찰서 내 의무 위반 근절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주운전 근절 3대 핵심과제인 술자리 차 사용 금지, 오후 10시 이전

종료, 동료 개입 일상화 등을 재강조했다. 같은날 서부경찰서도 오전 8시에 서대구초등학교 정문에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계몽운동에는 경찰, 교사, 학생회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화성산업, iF 디자인 어워드 2024 본상 3개 수상

국내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상 휩쓸어



드림키즈스테이션(위쪽)과 음악놀이터.

화성산업이 세계적 권위는 물론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 3개를 수상하는 등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 기술개발팀이 지난 1년여 동안 부서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친환경, 고객관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디자인한 드림키즈스테이션과 콘서트 스타일 놀이터를 비롯해 드림키즈스테이션이 사용자경험(UX-User Experience)과 건축(Architecture) 부문에서 본상을 동시수상했다.

콘서트 스타일 놀이터가 사용자경험 부문

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등 3개의 본상을 수상했다.

iF 디자인어워드는 1953년부터 독일 인터네셔널 포럼이 주관했다.

독일의 REDDOT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꼽힌다. 매년 최고의 디자인 결과물에 iF 디자인 상을 부여하는데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디자인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릴만큼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iF 디자인 어워드 2024는 72개국, 1만1000여 개의 작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이 진행됐다. 화성산업이 수상한 3건을 포함, 국내 건설사는 총 10작품이 본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국내 건설사는 그룹사 계열의 건설사가 대부분이며, 대구지역과 중견 건설사로는 화성산업이 첫 수상이다.

드림키즈스테이션은 화성파크드림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통학버스 승·하차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다릴 수 있는 시설물로 미세먼지 알람, 냉·난방, 공기청정기, 온열 벤치 등 학부모와 아이들이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콘서트 스타일놀이터는 신체에 이용, 놀이기구를 연주해 소통하는 오케스트라형 놀이터로, 확실적인 놀이터에서 벗어나 독창적 디자인과 기능을 인정받아 각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132명의 심사위원으로 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여은 기자



중구청,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계몽운동

중구청은 12일 동덕초등학교에서 중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동덕초 교사, 동덕초 전교어린이회장단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교통안전 계몽운동을 했다. 계몽운동은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 등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중구청 제공>

중구청은 12일 동덕초등학교에서 중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동덕초 교사, 동덕초 전교어린이회장단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교통안전 계몽운동을 했다. 계몽운동은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 등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중구청 제공>

수성못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벚꽃 투어

아름다운 자연 품은 도심 속 수변공원 대구 대표 관광지

벚꽃으로 물드는 4월 대구 수성못 일대에서 신규 기획 투어가 진행된다.

대구 수성문화재단은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에서 다음달 2일부터 회당 20여명의 규모로 4회에 걸쳐 걸쳐 신규 기획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

된다.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도심 속 수변공원으로 대구의 대표 관광지인 수성못은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해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는 장소다. 한국관광 100선에 2회 연속 선정된 바 있다. 수성못 스토리 텔러와 함께 구석구석 걸으며 재미있는 이야기와 살아 숨쉬는 자연 생태를 들으며 일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벚꽃길을 걸

으며 참가자들은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벚꽃 투어 신청은 13일부터 수성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2주간 신청을 받은 후 첫 투어를 한다. 수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는 수성못을 더욱 자세히 알고자 신규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차별성 있는 콘텐츠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전했다.

군위군, 영농부산물 파쇄단 효자노릇 특특

영농상황 고려 연중 탄력적 운영

군위군은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추진해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영농부산물과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자발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정리를 홍보해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미세먼지 저감을 높이고자 '영농부산물 캠페인'을 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잔가지를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면 파쇄지원단과 협의된 날짜에 현장 찾아가 파쇄 작업을 무상으로 진행한다.

올해 총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국비 40%, 군비 60%로 사업이 진행, 사업기간은 1월~4월까지이다.

군은 산림연접지 100m 이내의 고령·취약층을 우선 지원한다. 영농상황을 고려해 연중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미나리와 삼겹살, 향긋한 봄 드시러 오세요

두류정수장서 미삼 직거래 장터 미나리와 삼겹살 무료 시식코너

향긋한 미나리와 최고의 공함을 이루는 삼겹살을 함께 판매하는 미삼 직거래 장터가 오는 15~17일까지 3일간 대구 두류정수장에서 열린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및 산지 소비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나리 재배농가

를 돕기 위해서다. 행사는 최근 산지 소비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나리 재배농가를 돕고 시민에게 봄철 맞춤형 먹거리를 제공한다.

대구시는 동구 팔공산 지역과 달성군 화원·가창 지역에서 생산된 청정한 미나리와 우수한 한돈 삼겹살을 시중보다 1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미나리와 삼겹살을 직접 구입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미삼 체험장과 대구·경북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도 함께 운영한다. 미나리는 독특한 향과 씹사름한 맛으로 인해 '별의 전령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도락을 즐기는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어왔다. 각종 무기질·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중금속 배출로 피를 맑게 하며 몸속에 쌓인 독소 배출에도 좋은 봄철 대표 농산물이다. 행사의 미나리는 청정한 동구 팔공산 지역과 달성군 화원·가창 지역에서 생산된 미나리(9천 원/800g) 공산농협과 화원농협에서 제공하며, 미나리와 참깨공함인 삼겹살은 (1만원/500g) 대구·경북지역의 우수한 한돈으로 대구·경북 양돈농협에서 제공한다. 황태용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8(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57-9000 경영지원국 053-257-5000 광고국 053-257-0800 문예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5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문실 053-25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북에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경상북도

단지명	소재지	주요 입주업종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분양가격	분양문의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기계부품, 철강부품, 에너지/IT, 화학 등 (*임대전용 50만㎡)	3,604천㎡ / 203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053-603-2585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북구 곡강리, 용한리 일원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철강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1,295천㎡ / 257천원/㎡	포항시청 054-270-2823, 3813
상주 일반산업단지	상주시 현신동 일원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238천㎡ / 112천원/㎡	상주시청 054-537-7411
경산4 일반산업단지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다문리 일원	정밀기기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가구 제조업 등	1,066천㎡ / 293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696
고야제2 농공단지	구미시 고야읍 오로리 일원	통신장비, 전기장비, 운송장비, 식료품, 섬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가공 등	165천㎡ / 284천원/㎡	구미시청 054-480-6137

경북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 구미 국가 4·환장·하이테크밸리국가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 안동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산업용 헬프 규제자유특구
- 경주 원자력연구단지 원자력 혁신기술개발·선도 혁신

다양한 투파 인센티브 제공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조례 등에 따라 재정자금 지원
- 국내기업 및 도내기업 입지시설 자금 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기업 재정자금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예천박물관, 제7기 예천학 아카데미 개최

예천군은 12일 예천박물관에서 '제7기 예천학 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 예천학아카데미는 오는 5월 14일까지 지역주민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예천을 주제로 문화

유산, 전통놀이, 민속문화, 의병항쟁 등 총 10회의 강의와 현장답사로 진행된다. 예천학아카데미는 예천의 역사, 인물, 장소를 결합해 소재를 발굴하고 전문가를 섭외해 강의

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예천만의 특색있는 전문적인 강의로 주민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다. 김학동 군수는 "지역 문화와 관련된 알찬 교육으로 주민들이 애환심과 자긍심을 키우고 문화 계승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신뢰 받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

2024 적극행정 실행계획 사회·경제적 변화 대응

경북교육청이 적극행정으로 소통하고 신뢰받는 경북교육 실현을 위한 '2024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시행한다. 2024 적극행정 실행 계획은 급변하는 사

회·경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도 교육청은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소극행정 예방과 협력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소통 강화 등 총 5개의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위해 부서별로 적극

행정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5급 이상 성과평가에 적극행정 노력을 반영하며, 업무 개선·경감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한다. 소송지원과 배상 공제 가입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동시에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립한다.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공무원에게 교육감 표창,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과 함께 포상금도 지급한다. 적극행정 실행 계획이 기반이 되어 경북교육

청은 교육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도교육청 최초로 3년간 6회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3회 수상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따뜻한 경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용 기자

경북도의회, 의대 정원 확대 지지 결의...

지방 의료체계 붕괴... 의료계 국민고통 외면

경북도의회는 12일 연 제345회 임시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지지와 의사들의 진료현장 붕괴 촉구' 결의안을 채택·공표했다. 도의회는 "의대 정원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어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필수의료와 지방의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데도 의료계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와의 사단체가 이던 현실을 무시한 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났다"며 "즉각 진료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는 2.2명으로 서울(4.8명)은 물론 전국 평균(3.2명)에 훨씬 못미친다. 결의안 채택 공표 전 강만수 도의원(국민의힘·성주군)은 "이번 사태는 의료계의 반발을 예측할 수 있었고, 정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와 성실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용 기자

대구·경북 지자체 화학사고 대응 하세월

대구환경청, 지자체 대상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 계획 수립 겨우 14곳 뿐 전국 평균에도 못미쳐...

대구지방환경청은 지역 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의 화학사고 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된 사업은 간담회, 회비 컨설팅 등이다.

2020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 등이 의무화됐으나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이를 수립한 지자체가 50% 미만에 머물고 있다. 대구·경북의 33개 지자체 중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은 14곳(42%)이다.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환경청은 이달까지 대구·경북 지역 내 3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화학안

전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사고 대비 체계가 부족한 지자체에는 실무자 간담회, 기술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지자체가 화학사고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비와 대응체계를 갖춘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유기농 마늘 월동 후 주요 병 예방·방제 강화

따뜻한 겨울 고온다습한 봄 마늘 생육재생기 병해 우려

경북농업기술원은 올해 잦은 강우로 평년 대비 병 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마늘 재배 농가의 철저한 예방과 조기 방제를 당부했다. 마늘은 월동 후 생육 촉진을 위해 가을 거름을 주고, 각종 병 발생 억제를 위해 방제해야 하는데, 유기 재배의 경우 일반 농약을 사용할 수 없고 한 번 발생한 병은 쉽게 방제하기 힘들어 일반 재배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2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9°C 높았고, 강수량 또한 평년보다 54.5mm 많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마늘 생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 낱시 전량을 살펴보면 3~4월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강수량은 3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4월에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처럼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면 이른 봄에 무름병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고, 생육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잎집썩음병과 잎마름병 등의 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예방을 더욱 자주 하고 예년보다 더 이른 방제를 해야 한다. 일반마늘 방제는 발병 초기 7일 간격으로 무름병은 옥솔린산 수화제 등을 잎마름병은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유기 재배 농가에서는 잎마름병은 황(석회유황합제 등), 무름병은 구리(석회보르도액 등) 성분이 함유된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박재성 기자



마늘무름병(위쪽)과 마늘잎마름병.

다른 유기농업 자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https://www.naqs.go.kr)의 유기농업 자재 공시조회에서 찾고자 하는 병충해를 입력 후 검색해 알아볼 수 있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지난 겨울 높은 기온과 잦은 비로 마늘 관련 병 확산이 우려된다. 일반 재배 농가는 물론 초기 방제가 더욱 중요한 유기농 마늘 재배 농가에서는 철저한 병 예방과 방제를 통한 병해충 예방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북도의 마늘 생산량은 전국 2위(76,362톤)로 의성, 영천, 고령이 주산지다. 의성군은 한지형 마늘 생산량의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박재성 기자

영주시, 이불빨래 봉사 지역 어르신께 큰 도움

영주시안정면 적십자봉사회가 12일 이불빨래 봉사를 했다. 안정면 적십자봉사회 회원 1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봉사활동은 홀로 이불빨래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명태개발 지원금을 통해 마련됐다. '이불빨래 봉사'는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달 두 번째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안정면 적십자봉사회는 매달 안정면 관내 5개 마을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각 마을당 5개에서 10개 정도의 이불을 수거해 빨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선정된 마을은 봉암리, 용산리, 용산2리, 묵리, 단촌리로 총 5개 마을이다. 김영희 회장은 "우리 안정면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며, "추위가 한풀 꺾이고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겨우내 사용하던 이불을 세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봉사활동의 실시 배경을 전했다. 그는 "어르신들이 홀로 이불빨래를 하기 어려워 서 목은 이불을 빨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두려웠다"며, "그런 어르신들을 돕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1년짜리 봉사활동 계획을 세웠다"고 뜻을 전했다. 이날 이불빨래 봉사활동의 수혜를 입은 A씨는 "겨울 이불이 너무 무거워서 이불빨래가 너무 막막했다"며 "안정면 적십자봉사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줘서 마음이 놓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성기 기자

안동소주 우수성, 해외시장서 통했다

세계 최대 주류전문 박람회 ProWein 2024 참가 홍보

기업들은 국내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은 상품 위주의 전시와 홍보관에 방문한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시음과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독일 현지 증류주 권위자·해외 바이어-인론 등 30여 명이 참석, 한국 전통주 전문가인 줄리아 펠러(The Sool Company 대표)의 진행으로 안동소주의 역사와 전통성, 제조 방법과 업체별 주력 상품 소개하는 홍보 행사를 열었다. 홍보는 배부한 책자를 보면서 술을 시음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성호 안동소주협회 회장은 "역사와 품질 면에서 뒤지지 않는 안동소주의 잠재력을 알리고, 세계적인 입맛과 정서를 사로잡는 브랜드로 시장 확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안동소주도지사 품질인증 기준 마련에 이어 올해 비와 공동 주변 개발을 위해 경북도와 안동시, 업체에서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파악하는 등 명주 도약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안동소주 매출액은 2023년 170억 원으로 2022년 140억 원 대비 17.6% 증가하였으며, 수출 실적은 7억 원으로 '26년 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국제 증류주 포럼, 해외 박람회 참가,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세계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안동소주 스카치 위스키, 마오타이, 산토리에 버금가는 K-경북 위스키로 세계적인 명주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황대용 기자





경주시, “농어민수당 서둘러 신청하세요”

경주시가 2024년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가 오는 15일 마감되며 기한내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모바일 앱신청 모두 가능하다. 모바일 신청은 전년도 농업(임업)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해 경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 앱에서 도민증을 발급 받

은 후 신청 할 수 있다. 지급대상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2022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해서 경북도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같은 날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주낙영, 우동기 위원장 만나 ‘교육발전특구·문화특구’ 건의

주시장 “경주형 교육모델” 과 대한민국 대표할 문화도시 계획안” 설명 우 위원장 “경주만의 특화된 교육 개혁안과 문화 특구안 마련해 달라” 주문

주낙영 경주시장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지난 8일 경주의 한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갖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이날 조찬 회동은 주시장이 30년 전부터 쌓아 온 우 위원장과의 친분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주시장은 시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현안 사업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주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과 관련,

경주시가 경주만의 특화된 교육 개혁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 지역 내 4년제 대학 3곳 등 대학 4곳과 국제통상마이스터고, 디자인고, 보건고 등 다양한 특성화·특목고가 있다는 지역 특성을 잘 살려 향후 본격화 될 문무대왕과 학연연구소, SMR국가산단, 혁신원자력산업 등 지역 대표 산업과 연계한 ‘경주형 교육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지자체는 3년 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개혁이 가능해진다. 시범 특구로 지정되면 최대 1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결국 사유가 없다면 3년 후 정식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주시는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며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하고 오는 5월로 예정된 정부의 2차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주낙영 시장은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문화특구 공모 사업과 관련해 “지방시대위원회와 문

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문화특구 지정은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며 “경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인 만큼, 문화특구로 지정될 당위성과 명분이 충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우동기 위원장은 “정부의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문화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경주만의 특화된 교육개혁안과 문화도시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5 APEC 경주유치 손님맞이 캠페인 본격 전개

APEC 개최도시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 글로벌관광도시 구축

경주시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개최도시에 걸맞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진시민의식 및 손님맞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시는 12일 시청 앞천홀에서 APEC 경주유치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학 부시장 주재로 살·국·사업소별 전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위한 ‘선진시민의식 및 손님맞이 캠페인 실천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실천보고회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 유치를 위해 재결집하고 개최도시 시민의 준비된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서별 성격에 부합하는 캠페인 실천과제 78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계획 보고와 구체적 실천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과제로는 온 시민이 함께하는 캠페인을 목표 표창장하기, 주민의식 갖기, 공익우선 배려하기 등 선진시민의식 4대 과제를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전개하고, 법과 질서가 바로 선 세계 일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생활환경, 교통, 행사 질서 등 3대 기초질서 지키기를 추진한다. 또 친절, 정결, 신용, 안전 등 관광선진화 4대 실천과제를 통해 경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바가지요금과 호객행위 없는 친절하고 깨끗한 손님맞이 준비 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개최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관광도시를 구축하는데 빈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핵심 실천과제 외에도 청렴, 탄소중립, 물가안정, 고향사랑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시민 현장 캠페인과 시민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유치 공감대 확산에 전력할 기출일 방침이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제40기 노인대학 입학식

240명 입학, 3~12월까지 매주 화요일 교육 진행돼

(사)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는 12일 웨딩파티엘에서 40기 노인대학 입학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내빈, 입학생 등 270여명이 참석해 노인강령 낭독, 입학 선서, 교가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40명이 입학한 이번 노인대학은 이달 15일 개강을 시작으로 올 12월까지 10개월 간 매주 화요일 2시간 강의가 진행된다. 세부적으로는 교양 및 정서교육, 이 시대 노인의 자세, 건강관리, 레크레이션, 취미생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노인대학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입학이 가능하며, 지난 1982년 4월 17일 월성초등학교

의 한 교실에서 설립돼 올해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노인대학은 고령화 시대에 노년기를 맞이한 어르신들이 각종 교육의 기회와 모임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정보를 쌓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노인대학에서의 배움을 통해 쌓은 지식을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중심상가 보행자 중심 도로·인도로 새 단장

경주 중심상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으로 탈바꿈됐다. 시는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중심상가 일원에 2022년부터 올 3월까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의 대표적인 변화기인 중심상가는 그간 차도와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늘상 존재해 있었다. 또 보행 동선이 불편하고 보도시설이 노후화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동성로, 원효로, 계림로, 태종로 791번길 등 4곳에 대해 길이 1042m, 7~8m 폭으로 도로를 포장하고 인도를 개설했다. 더불어 도로 곳곳에 중심상가를 상징하는 디자인(금리단길)을 적용한 56주의 조형열주도 설치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심상가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오도창 영양
군수는 13일 오후 영양군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K-U시티 간담회」에 참석한다.



윤경희 청송군
수는 13일 북철산 불예방을 위해 각 읍·면을 방문해 각종 불법 소각행위 근절 등 홍보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청도교육지원청, 학교장 대상 청렴실천 다짐식 개최

청도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청도 학생미래교육관에서 청렴실천 다짐식을 가졌다.

2024학년도 새학기를 맞이해 각급 학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문화조성을 위한 다짐이다.

이날 각급 학교장들이 학교 운영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실천 다짐문 작성 및 낭독으로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조여은 기자



청송군보건의료원 비만예방의 날 캠페인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지난 4일 비만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가볍게, 일상에서 걷고, 물을 마시고, 나트륨 지방을 줄이자라는 슬로건으로 비만예방의 날 캠페인을 운영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청송군이 합동으로 비만예방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다수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6개 읍·면 전통시장에서 운영했다. 윤병로 기자

LX공 영양지사 매각은 지방소멸 부추기는 행위다

‘공공기관은 공익이 우선돼야... 지방소멸 타파 총력...저출생 전쟁’

영양군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 청송·영양지사 영양사무소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LX공사 청송·영양지사 영양사무소 매각을 반대하기 위해 영양군수와 46개 기관·단체 공동 명의 호소문을 발송하는 등 LX공사 영양사무소를 지키기 위해 한 목소리로 높였다.

경북도는 지난 2월 20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도 내에 산재한 인구감소지역 15개 시군과 합심해 지방소멸을 타파하고자 두 팔을 걷어붙이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영양군 또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및 교육관 건립, 영양소방서 신설, 양수발전소 유치, 농산물품질관리원 영양 분소 개소, 국도 31호선 선형개량 사업 등 영양군의 생존을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과 사업을 유지하며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간절함 속에 LX공사 청송·영양지사 영양사무소 매각 소식은 희망의 불씨를 품고 있던 군민들의 가슴에 찬물을 끼얹었다.

LX공사 영양지사는 8명의 직원이 매년 1000여 건의 지적 측량부터 재산권까지 지역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민과 함께 하며 공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LX공사의 영양사무소 매각 결정은 '공익'보다 '경제논리'를 우선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영양군의 41.41%에 이르는 고령인구의 이동성 문제와 대중교통의 긴 배차간격 등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공공기관은 ‘소비자’보다 ‘시민’, ‘경제성’보다 ‘평등’의 가치 위에 설립됐다.

LX공사는 국토와 공간정보에 대한 국민의 재산권이 평등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이번 매각은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 창출, 건전한 공사경영을 통한 국민신뢰 제고'라는 LX공사의 혁신 방향에 반하며 지방소멸이라는 범국가적 위기를 좌시하고 경제성만을 좇는 결정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이에 영양군민들은 영양사무소 매각 철회를 위한 호소문을 채택하고 관내 단체들은 지역을 지키기 위해 영양사무소 매각을 반대하

는 움직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영리기관이 아닌 대민 공공 서비스 기관은 지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으로 지방소멸에 맞서 LX공사가 공익을 위한, 지역을 위한 결정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미국 동화 '한스 브링커, 또는 은빛 스케이트'의 내용 중 '네덜란드 하알렘 지역'에서 독에 난 작은 구멍을 어린 소년이 손가락으로, 팔뚝으로, 결국 온몸으로 막아서 마을을 구한 이야기가 있다.

LX공사 영양사무소 매각은 독에 난 작은 구멍 일 수 있다.

이 작은 구멍을 막기 위해 영양군민들은 '하알렘 소년'의 절실함을 담아 독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합심하고 있으며 외침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권윤동 기자

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

재단법인 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7일 영양군청에서 제34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저년 석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학기 중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영양고·영양여고 학생이 대상이다.

현재 학교 무상급식은 학교급식에 따라 학기 중 수업일 중식만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식비 부담으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재)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고등학교의 학기 중 기숙사생 및 야간자율학습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석식비를 지원한다.

지원 예정액은 1식당 학부모 자부담 1천원을 제외한 약 4천2백원이다. 권윤동 기자

민주평통 영덕군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덕군협의회는 지난 8일 자문위원 및 대행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주민 포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정세 혼란기, 북한의 대남도발 강화' 및 '북한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고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이탈주민 포용을 위한 북한인권 개선 정책 추진 방향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또한 1분기 통일외견 수렴에 앞서 '2023년 4분기 의견 수렴 결과 보고'가 진행됐다.

'글로벌 복합위기시대 대응을 위한 추진해야 할 당면한 과제'로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구체화,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통합, 남북대화 등의 의견이 상위 과제로 도출됐다. 조여은 기자



울릉군 평생교육은 우리가 책임진다

마을 평생 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교육지도자 23명 수료

울릉군은 지난 11일 울릉군청 회의실에서 수료생 23명을 대상으로 2024년 울릉군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교육은 지역 평생교육 활동가를 양성하고 배움함으로써, 울릉군

의 민간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정책사업이다.

'2024년 울릉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은 지난 6일부터 대학교수, 현장 전문가 등 평생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수준 높은 전문가를 초청해 19차 총 57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포항시, 거창군을 방문해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도 함께 체험해보는 등 수강생들에게 평생교육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에서는 특별강연을 준비, 수료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함께 참석해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세상을 바꾸는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에 대한 강연을 함께 청강하여 직원 역량 강화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남한권 군수는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과정을 통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질의 울릉군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자연보호청도군협의회 산불예방 캠페인 펼쳐

자연보호청도군협의회는 12일 산불예방을 통한 자연보호를 위하여 환경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자연보호청도군협의회

회원 30여 명은 봄철 날씨에 산불위험이 큰 상황 속에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주요 등산로 입구에 산불예방 홍보지를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군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라며,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친 자연보호청도군협의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계도 활동 및 홍보로 산림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천 영주 봉화 고령 의성

최기문 영천시장은 13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3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식에 참석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13일 오전 풍기 성내교회에서 열리는 풍기 성내교회 부설 노인대학 입학식에 참석한다.



의성군, '청년마을 만들기' 추진

의성군이 오는 18일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4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주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시청년을 대상으로 로컬 탐색, 일거리 실현, 지역사회 관계 맺기 등을 지원한다.

의성군을 포함, 전국의 39개 청년마을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년유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의성군 청년마을 '나만의-성: 로컬러닝랩은 도시 밖 삶을 꿈꾸는 Z세대의 '배움 실현실'로 2022년부터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프로그램, 지역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의성마늘황도메 기여여조합 등과 함께 로컬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크라우드 펀딩을 시도하였고, 참여 청년의 아이디어로 개발한 상품을 올해 시중에 판매할 예정이다. 박재성 기자



봉화군, 한걸음 나아가는 건강마을 건강교실 운영

봉화군보건소는 3월 한 달간 봄 전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마을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마을 조성사업 건강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법정면 경로당 21곳에서 운동교실과 노래교실을 총 126회 실시한다.

건강마을 건강교실은 지역사회 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지역 내 민간으로 양성된 마을평생교육지도 강사를 활용해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성화하고, 마을 단위 건강증진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주민 주도형 사업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전성기 기자

영주시장, 우량기업 유치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가 필수

김홍목 부산국토관리청장과 면담 국가산단 진입도로·국도28호선 건설 등 지역 현안 사업 논의

기업하기 좋은 영주시 건설을 위해 박남서 영주시장이 팔을 걷어부쳤다.

박 시장은 지난 11일 영주시를 방문한 김홍목 부산국토관리청장과 면담을 가지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영주 첨단배어링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이 국가산단 준공 시기에 맞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적동~상망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했다.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가 시행중이다.

총사업비 422억 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두전교차로(문정동)~국가산단(적서동)을 연결하는 총 길이 2.1km의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미 2019년에 국가산단 진입도로 노선검토를 끝내고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꾸준히 설득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 온 결과, 올해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현재 실시설계 발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적동~상망 국도대체우회도로 역시 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적서교차로에서 상망교차로까지 6.3km 길이의 외곽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국가산단 진입도로와 적동~상망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건설되면 영주시까지 외곽순환 도로망의 완성과 더불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교통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서 시장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가 필수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입주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25일 승인 고시된 영주 첨단배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총사업비 2천964억 원을 투입해 적서동과 문수면 일대에 118만㎡(약 36만평) 규모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6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하고 8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전성기 기자

영천시 2024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 접수 시작

음식점 최대 2천만, 숙박업소 1천만, 스마트관광시설 6백만원 지원

영천시는 '2024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5일 접수를 시작으로 경북도와 영천시가 함께 추진하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6회째 맞이하는 이 사업은 관내 주요 관광지 및 관광지 인근 음식점소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광서비스 시설 개선과 관광객 편의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관내 115개 업체가 선정돼 혜택을 받았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음식점소의 경우 입식 테이블,

개방형 주방, 화장실, 간판, 메뉴판 등의 개선으로 입식 시설 개선이 필수 사업으로 포함돼야 한다.

숙박업소의 경우 실내 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 조명 등이 개선사업 대상이며 올레 스마트관광시설 사업이 신설되어 서빙 로봇과 테이블오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 선정 시 음식점소는 개소당 최대 2천만 원, 숙박업소는 최대 1천만 원, 스마트관광시설 최대 6백만 원이 지원된다.

총 사업비 기준 30% 이상 자부담을 조건으로 지난해 기준 40% 대비 10% 감소해 신청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오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영천시청 관광진흥과에서 신청·접수한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공사업체의 견적

서를 토대로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설 환경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도시로서의 영천시 이미지를 확립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특히 좌식 시설을 입식 시설로 개선한 음식점의 경우 손님들의 시설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고 전했다.

최종 선정 결과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중 선정 업소에 개별 통지되며 사업은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최은하 기자

영천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개최

영천시의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36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학 의원은 복안면 영천돌할매공원의 관리소홀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제23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 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영천시축사약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산감사위원에는 김신태 의원, 김현철 세무사, 김병지 前의회사무국장이 선임됐다.

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권기환 의원, 부위원장은 배수에 의원이, 영천시축사약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주학 의원, 부위원장은 김신태 의원이 선임됐다.

2일차에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호 의원 대표 발의)등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영천시의회 하기태 의장은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와 영천시 축사 약취방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축사약취문제 해결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영주시,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 최대 2천만원

점포 임차료도 3년간 지원 오는 29일까지 참여자 모집

경북 영주시는 오는 29일까지 '2024년 영주시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더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49세 이하의 영주시 전통시장 내 빈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유지할 수 있고 지역산업, 기존 상인들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업종이어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점포 리모델링비, 흥

의성군, 15일부터 율정호 운항 개시

의성군은 오는 15일부터 단밀면 생송리 낙단보 인근에 소재한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의 율정호(이하 청년통신사선) 운항을 개시한다.

매년 3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운항되는 율정호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회 운항된다.

이용료는 대인 8천원, 소인 5천원으로 의성군민에 한해 50%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또한 올해 군은 낙단보에서 청년통신사 공원까지 연결되는 산책로 코스와 다목적광장을 개방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바나나보트, 모터보트, 밴드웨건, 수상자전거 등과 같은 다양한 수상레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율정호를 탑승하면서 아름다운 낙동강 절경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와 율정호를 타고 많은 추억을 쌓고 여름에는 수



상레저도 즐기러 찾아오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과 즐거움을 위해 복합수상레저시설로 운영될 것"이라며, "앞으로 많은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마련하여 박서생과 청년통신사공원을 의성의 대표관광 명소 중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고령군관광협의회, 버스투어로 단체관광객 유치

사)고령군관광협의회가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난 9일 진행된 버스투어 사업은 2017년 미니버스 투어를 시작으로 매년 고령군관광협의회에서 진행해 온 사업으로, 전문여행사의 전세 버스 임차료 일부를 지원해 고령의 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지역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고령관광상품을 개발한 여행사에 45인승 대 기준 20명 이상 모객해 고령 관내 음식점 이용, 유료 관광명소 방문 또는 유료 체험 이용의 조건이 있으며, 사후 증빙을 통해 전세버스 임차료 일부를 지원한다.

고령군은 지난해 지산동 고분군이 유네스

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의 발걸음이 늘고 있다.

또한, 최근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단체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사업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 예산의 빠른 소진이 예상된다.

2024 버스투어 사업은 사전 신청이 필수이며, 버스투어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사)고령군관광협의회(054-950-6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4-2025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고령 대가야축제는 오는 3월 29일(금)부터 31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일간 열릴 예정이다.

지산동고분군과 고령 대가야박물관, 역사테마관광지 일원에서 대가야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배영백 기자

경산시립교향악단 제5회 정기연주회 개최



경산시립교향악단은 '제5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10월 19일에 개최된 제4회 정기연주회에 이어 5개월 만에 열린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80여 명의 연주자가 출연해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쥐' 서곡을 시작으로 하이든 첼로 협주곡 2번, 슈만 교향곡 1번 '봄' 연주를 선사한다.

특히 하이든 첼로 협주곡 2번은 국내 최정상의 첼리스트 김민지와 특별 협연으로 연주될 예정이다.

이날 경북도 핵심과제인 '완전돌봄'체계 구축에 발맞춰 '완전돌봄센터 운영,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을 중점 추진하고, 국·도비 확보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도비 매칭을 위한 저출생 극복 과제로 △E(english)-편한도시 성주! 영어특성과 교육 강

공연은 무료로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발매 중이며 공연 전일까지 예매할 수 있다. 또한 잔여석은 공연 당일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053-810-5359, 6618)로 문의하면 된다. 신경윤 기자



문경시립문화도서관 나만의 동화책 만들기

문경시립문화도서관은 지난 11일부터 7월 1일까지 매주 월요일 문경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을 대상으로 '나도 동화책 작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도 동화책 작가!'는 매주 독서 놀이 후 학생들이 직접 자신만의 동화책을 만들어 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책을 만들어 보면서 본인만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과 창의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회관장(관장:엄원식)은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동적인 지식·정보제공 서비스뿐만이 아닌 적극적인 독서 진밀감 형성 서비스를 하겠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동화책은 문경초등학교 내 전시 후 7월 9일부터 문화도서관에서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동수 기자

빠르게! 다르게! 성주군, 저출생 극복 실행계획 추진

2025년 국·도비 확보 전격 돌입 저출생 극복 과제별 실행계획 추진

성주군이 저출생 극복에 역량을 모았다. 군은 지난 11일 저출생 극복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비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27일 저출생 TF팀 대응 전략 보고회 개최 후 2주 만에 진행됐으며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생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주 발표된 경북도 '저출생과 경쟁 과제별 실행계획'에 발맞춰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국·도비를 선점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경북도 저출생과 경쟁 과제별 실행계획은 4대 분야 72개 사업으로, 핵심과제인 '우리동네 돌봄 마을'과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조기퇴근 돌봄'의 세부 추진계획까지 포함돼 올 상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경북도 핵심과제인 '완전돌봄'체계 구축에 발맞춰 '완전돌봄센터 운영,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을 중점 추진하고, 국·도비 확보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도비 매칭을 위한 저출생 극복 과제로 △E(english)-편한도시 성주! 영어특성과 교육 강



회원 △I(아이)-U시티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 △24시 365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육아친화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총24건이 발굴됐다.

한편 이번 보고회부터 성주군 저출생 극복 서포

터즈 I-뱅크가 함께 참여한다. I-뱅크는 성주군에 거주하는 젊은 기혼, 미혼 6명으로, 성주의 출산·양육 환경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해줄 예정이다.

하윤용 성주 부군수는 "경북도 저출생 대응정

책이 빠르면 올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성주군이 선점해, 군민들이 출산·양육 환경의 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재훈 기자

경산시, 20여 년 만에 새 대표 상징물(CI) 도입

시 대표 상징물 개발 착수 도시브랜드와 통합 마케팅



로운 CI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행정구역으로 지자체를 구분하는 시대는 지났다. 지자체도 무한경쟁의 시대에 맞춰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 상전벽해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경산시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은 도시브랜드 'My Universe Gyeongsan'에 담았다면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다양한 매력을 지닌 경산시간의 새로운 정체성을 담은 대표 상징물 개

발이여는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우리는 모든 것이 시각화되고, 그것이 곧 콘텐츠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경북 도내 인구 3위의 무한 확장하는 도시임을 틀림없이만 아직도 전국 단위에서는 큰 인지도와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입 베어 문 사과를 보면 바로 특정 기업을 떠올리듯이 경산시 대표 세일즈맨으로서 도시브랜드 'My Universe Gyeongsan'과 함께 기획의 도시 경산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징물 개발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시는 대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6월경 심볼마크(CI) 기본형을 공개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본격 사용될 계획이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해 새 도시브랜드 'My Universe Gyeongsan'을 런칭하고 선포식을 통해 대내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신경윤 기자

칠곡군, 청년 스타트업 꿈 지원

칠곡군은 청년창업 확산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은 예비창업자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에게 창업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인당 1200만 원의 상품화 제작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등 창업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칠곡군에 거주 중인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기술·지식서비스·6차산업·일반 창업분야의 예비 창업가 또는 창업 1년 이내 초기 창업가이며,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3월 26일까지이며, 운영기관인 영진전문대학 산학협력단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집분야와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홈페이지와 영진전문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미경 기자

필리핀 히오옥시 관계자 상주시 방문

계절근로자 근무현장 방문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벤치마킹



적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통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상주시와 히오옥시는 2023년 2월 양국의 선진 농업기술 교류 및 농촌 일손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해 상호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필리핀 히오옥시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49명이 지난 7일 상주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3년 상주시와 히오옥시 간 MOU 체결 이후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 견학을 통해 선진화된 농업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농업기술 습득과 점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문이다. 또 히오옥시에서 상주시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8명의(화동면 4명, 사벌국면 4명) 근로현장 방문 및 격려도 함께 했다.

이는 두 도시 간의 우호 관계 향상은 물론 지속

예천군, 인구·청년정책 분야 공모사업 3개 선정

저출생 대응 프로그램 등 사업비 2억 8천만원 확보

과 맞춤형 취업교육,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청년친화 공간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예천읍(예천군청년센터)과 호명읍(경북여성정책개발원) 2곳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행복뉴딜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예천군 청년 이음' 연결의 시작'사업은 지역 청년들 간 공동체 강화를 목표로 청년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인 '청년 클럽', 각자의 어려움을 나누고 치유하는 '네트워킹 데이', 공동체가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리빙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로컬 라이프 구축과 확산을 위해 지역살이 체험 프로그램인 '원데이 라이프'와 '청년 함께 살아보

예천군이 고용노동부와 경북도에서 주관하는 인구·청년정책 분야 공모사업에 지원해 총 3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와 '저출생 대응 프로그램 공모',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공모' 등 3개에 선정돼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청년들의 구직 단념 예방과 일상 유지를 위해 1:1 심리상담 프로그램

2023년 10월 히오옥시 계절근로자 8명이 입국하여 화동면과 사벌국면에서 근로를 시작했다.

오는 5월경 30명 정도의 인원이 추가로 입국해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배정되어 근로하게 될 예정이다.

히오옥시 에릭 카노사시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히오옥시의 젊은이들이 상주시의 계절근로자로 더 많이 참여해 우수한 한국농업기술을 배워 히오옥시의 농업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양국간 선진농업기술 교류를 위해 상주시를 방문해 주신 에릭 카노사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상주시의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우호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기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또한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대굴대굴 놀이꿈터' 사업은 부모의 양육 부담 감소와 영유아의 건강함 성장을 위해 예천군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을 거점공간으로 놀이체육, 오감놀이 등 다양한 놀이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도내 문화탐방, 지역농산물 수확과 요리를 체험하는 농촌체험활동, 캠핑여행 등 가족 공동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위기 문제가 심화되는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와 경상북도의 정책 방향과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 기자

포항시, 순환이용 정비사업 추진 지원

포항시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포항시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포항시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올해 사업비로 확보한 국비 23억 원 외에 국비 32억 원 및 내년도 국비 5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고원학 포항시 환경국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를 방문해 순환이용 정비사업과 관련한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포항시는 이 사업에 2023년 예산으로 국비 50억 원을 신청했지만 29억 원의 사업비만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됐다.

올해 국비 23억 원에 더해 추가 사업비도 확보하면서 사업이 예정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환이용 정비사업은 현재 포항시가 사용 중인 호동2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오는 2034년까지 추가매립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해 가연성, 불연성, 토사로 재선별한 후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고 불연성 폐기물과 토사는 재매립해 부족한 매립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포항시는 오는 2035년 예코빌리지 조성 시까지 생활 쓰레기의 안정적인 매립을 위해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원학 환경국장은 "국비 추가 확보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주변의 환경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창명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2025

A P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과거의 역사를
아우르고



현재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의 꿈을
실현합니다

